

# “게으름없이 혼신 다해 정진하라”

##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

一得永得(일득영득)하여 如如不變(여여불변)이요,  
 微念不起動(미념불기동)이라.  
 大寂滅場中(대적멸장중)에서 遊戲自在(유희자재)함이  
 正眼宗師(정안종사)들의 悟后行履(오후행리)로다.

하나를 얻으면 길이 얻어서 여여하여 변치 않음이요,  
 티끌만큼의 생각도 일어남이 없음이라. 큰 적멸의 가운데에서 자재하게 놀이 정안종사들의 깨달은 후의 행리로다.

금일은 갑오년 하안거 결제일이라. 사부대중은 각자 자리에서 自己事(자기사)를 마치는 데 게으름이 없어야 함이로다. 우리가 사바세계에서 인간의 몸을 얻은 것은 다른 데 뜻이 있는 것이 아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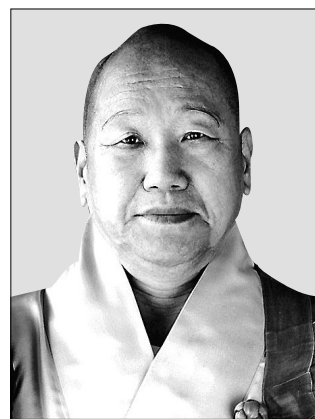
오로지 生死(생사)를 요달하여 부처님의 진리의 세계에서 영원한 안락을 누리려고 함이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생사를 요달하여 부처님의 진리의 세계에서 영원토록 낙을 누리겠는가.

이미 話頭(화두)가 있는 이는 각자 화두를 챙기되, 화두가 없는 이는 “부모에게 이 몸 받기 전에 어떤 것이 참 나던가?” 하고 이 화두를 들고 오매불망 간절히 의심해야 함이로다. 일상생활 가운데 하루에도 천번 만번 챙기되 한 번 챙기고 간절한 의심을 주욱 밀어주고 또 챙기고 밀어주어 화두의심 한 생각이 흐르는 시냇물처럼 끊어짐이 없게끔 챙겨야 함이로다. 화두의심을 끊임없이 밀어주라는 이유는 참의심이 발동이 걸리도록 하기 위함이니, 시골에 방앗간에서 아침에 방아를 돌리는 데 처음에는 잘 걸리지 않다가도 꾸준히 방아를 돌리다 보면 문득 시동이 걸려서

하루 종일 쉬지 않고 방아를 돌리는 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 그러므로 혼신을 다해 화두의심을 챙기다보면 문득 참의심이 일어 화두의심 한 생각이 푸욱 빠져서 사물을 봐도 보는 감각이 없고 소리를 들어도 듣는 감각이 없게 됨이로다. 그렇게 一念三昧(일념삼매)에 빠져 한 달이고 일 년이고 십 년이고 시간이 흘러가는 줄 모르고 흐르고 흐르다가 문득 사물을 보는 찰나에 소리를 듣는 찰나에 화두가 박살이 남과 동시에 자기의 참모습이 밝은 대낮과 같이 확연하게 드러나게 됨이로다. <종략>

백장스님이 마조 선사 회상에서 侍者(시자)로서 시봉할 때에, 하루는 마조 선사를 모시고 산골의 들판을 지나게 되었다. 조용하던 길은 산골 들판에 인기척이 나니 들오리들이 놀다가 푸욱 날아갔다. 이를 보고 마조 선사께서 시자에게 물으시기를, “저기 날아가는 것이 무엇인고?” 하니, 시자가 “들오리 떼입니다.”하고 답하였다.



“어디로 날아가는고?”  
 “저 산 너머로 날아갑니다.”  
 시자가 이렇게 답하자마자 마조 선사께서 시자의 코를 꼭 잡아 비틀어버리셨다. 이에 시자가  
 “아아!”하고 소리를 지르니, 선사께서 “어찌 날아갔으리오?”하시었다.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시자가 선사님을 모시고 절에 돌아와서는 방에 들어가 안

으로 문을 잠그고, 먹고 자는 것을 잊고 勇猛精進(용맹정진)에 들어갔다.

“저 들오리가 어디로 날아가는고?” 물으셔서 ‘저 산 너머로 날아갑니다.’ 라고 답하였는데, 어쩌내 내 코를 잡아 비틀고 ‘어찌 날아갔으리오.’ 하셨을까?”

이 의심으로 一念三昧(일념삼매)에 푸욱 빠져들었다가 일주일 만에 해결되었다. 마조 선사께서 어쩌서 코를 비트셨는지 알게 된 것이다.

그래서 곧장 조실스님을 찾아가 방 앞에서 “조실스님, 어제까지는 코가 아프더니 이제는 더 이상 코가 아프지 않습니다.”하고 말씀드렸다.

이에 마조 선사께서 백장 시자가 눈이 열렸음을 아시고 다른 시자를 시켜 雲集(운집)을 치게 하였다.

그러하여 수백 명 대중이 법당에 운집하여 坐定(좌정)하고 있고, 마조 선사께서도 법상에 올라 좌정하고 계시는 차체에, 마지막에 백장 시자가 들어와 마조 선사께

예삼배를 올리고는 절하는 배석자리를 돌 돌 말아 어깨에 메고 나가버렸다. 이에 마조 선사께서도 즉시 법상에서 내려와 조실방으로 돌아가버리셨다.

正眼(정안)이 열리고 나면 이와 같이 척척 통하는 법이로다.

그러면 時會大衆(시회대중)은, 마조 선사께서 법상에 올라 좌정하고 계시는 차체에 백장 시자가 들어와 예삼배를 올리고 배석자리를 돌 돌 말아 어깨에 메고 나가버리니, 마조 선사께서 법을 설하지 않고 곧장 법상에서 내려와 당시 방으로 돌아가 버리신 뜻을 아시겠습니까?

龍袖拂開全體現(용수불개전체현)이요 須彌倒卓半空中(수미도락반공중)이로다.

금일이 용상 위에서 소매를 떨치니 전체가 드러남이요,

수미산이 반 허공 가운데에 거꾸로 꽂힌 이로다.

## “대용맹심으로 결제에 임하라”

### 해인총림 해인사 방장 법전 스님

<상략>  
 인어가 용문폭포를 통과하면 용이 되지만 통과하지 못하면 올라가던 도중에 바위에 머리가 부딪혀 이마에 멍만 들고 맴니다. 이를 점액(點額)이라고 합니다. 선불장은 뱀을 용으로 만드는 등용문입니다. 선가(禪家)에서 견성하지 못한다면 바로 그것이 ‘점액’인 것입니다. 결제를 제대로 한다면 등용문이 될 것이요, 결제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이마에 멍 자국만 남는 점액문이 될 것입니다.

광운선사는 ‘용문에는 목어가는 객이 없다’고 했습니다.  
 설두선사는 ‘용문에서 일찍이 목었던 나 그네’라고 하였습니다.

하안거 결제대중은 용문입구에서 쫓겨나는 객이 될 것이 아니라 용문에 입살하여 목을 수 있는 객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용문의 객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한 자리에 오래 머물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오래 앉아있는 것으로 살림살이를 삼는



다면 결국 삼십대의 방랑이가 기다리고 있음을 누구보다도 본인 스스로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결제철에는 반드시 공부를 해마치겠다는 대용맹심의 각오로써 임해주시기를 당부합니다.

## 자신만이 나를 구할 수 있다

### 조계총림 송광사 방장 보성스님

지금 이 도량에는 용사가 흥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오직 일대사를 요달하기 위해서 모여 있었습니다.

사상산四相山이 점고漸高하면 삼도해三途海가 익심益深이라.

옛날에 유생들에게 팔시 받을 때 공부를 훌륭하게 하는 분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요새 와서는 모두가 대접받는데 몰입되어

서 그야말로 제정신을 못 차리는 그런 안타까운 때에 놓여있습니다.

여러분! 귀가 있으시니 들겠지요. 아무쪼록 이 위기를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은 일대사를 요달하겠다는 본심을 가지고 이번 하안거 결제에 동참하고 있다고 봅니다. 크나큰 배신은 내가 나를 배신하는 것이 더 큰 배신입니다. 그러기에 거듭 거듭 부탁드립니다. 요새 와서는 대접 받으려는데 급급해서 내가 나를 돌아볼 줄 모르는 바로 이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부처님을 받들겠다는 부처님 제자들이 부처님 말씀은 등지고 내 이익에만 급급한



오늘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이끌어주겠는가? 여러분들 아니고는 아무도 구제할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인천(人天)의 안목을 얻어서 아무쪼록 내가 나를 등지지 않는 장부가 되기를 바라면서 한철 용맹정진 하시길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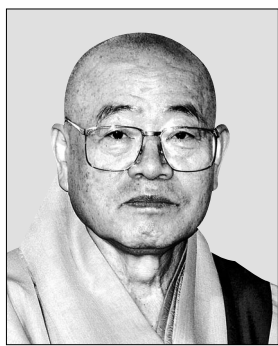
## 매화가 눈서리 겪어야 그 향기 코를 찌른다

### 쌍계총림 쌍계사 방장 고산 스님

응연(凝然)한 한 물건이 두루하지 아니함이 없으니 홀로 가는 하늘과 땅에 달빛만 가득하다. 파도 없는 바다위에 여룡(驪龍)이 뛰어 놀고 그림자 없는 산위에 사자(獅子)가 노는 도다. <종략>  
 미(迷)한 꿈을 깨닫지 못하면 만사(萬事)가 실(實)답지 못함이니 저 칼날 위에처럼 다시 정신을 차려서 모릅지기 삼요(三要)를 갖추라.  
 첫째는 대분심(大憤心)이요, 둘째는 대용

맹심(大勇猛心)이요, 셋째는 대의정(大疑情)이니 위의 삼요는 숲의 삼밭과 같아서 하나라도 꺾(斷)하면 바로 서지 못함이라. 대도를 이루고져 하되 삼요를 갖추지 못하면 모래를 써서 밥을 짓는 거와 같음이니 어떻게 근본을 얻으리요.

역수맹선필역량(逆水撐船筆力量)하고 여묘포서갈정성(如猫捕鼠竭精誠)하라 도불원인인자원(道不遠人自遠)하니 매경상설비총향(梅經霜雪鼻充香)이로다 역수에 배를 저어 역량을 다하고



고양이가 쥐를 잡듯 정성을 다하여야 도는 사람을 멀리하지 아니하나 사람이 스스로 멀리하니 매화가 눈서리 겪어야 향기 코를 찌르리라

## 무명의 길에서 무생 도리 찾아가라

### 영축총림 통도사 방장 원명 스님

祖意明明百草頭  
 春林花發鳥聲幽  
 朝來雨過山如洗  
 紅白枝枝露未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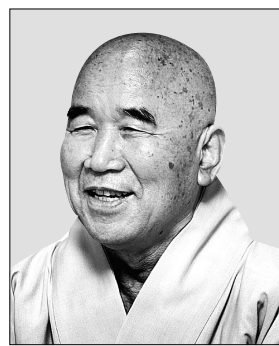
풀끝마다 조사의 뜻 분명함이어! 봄 숲에 핀 꽃 새소리 그윽하네. 아침에 비 뿌린 뒤 산은 씻은 듯하니 가지마다 붉고 희어 감출 수 없구나. <종략>

배고프면 밥 먹고 졸리면 잠을 잡니다. 이는 평상의 이치를 통해서 변함없는 도리를 깨우쳐주려 함입니다.

지극히 평범하고 지당한 것들을 직시하는 것이 참 수행입니다. 바람이 불면 풀이 춤을 추는 이치와 같습니다.

더 이상 시간을 허비하며 밖으로 헤매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생사는 끊임없이 나를 압박해 몰려날 곳이 없게 하고 있습니다.

무명의 길 위에서 무생의 도리를 찾아가는 대장부 수행자답게 용맹심을 낼 때



입니다.

진흙 속에 있어도 결코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잡다한 세상사에 망설이지 말고 오직 금생뿐이라는 굳은 마음으로 화두와 씨름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불편함 없으면 좋은 소식 있겠는가

### 덕숭총림 수덕사 방장 설정 스님

이 時代를 살고 있는 工夫人들이 精進에 앞서 꼭 마음에 새겨야 할 과제가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達磨血脈論에서 말씀하신 理人四行論이다. 즉 真理에 들어가는 네 가지 중요한 행동이란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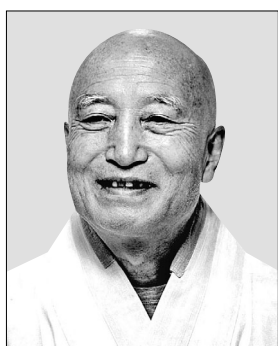
첫째, 報怨行이다. 개성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서로에게 보탬이 되고 도움이 되서 상호 보완하므로 개체와 전체가 융통하게 하는 것이며, 둘째, 隨緣行이다. 非行을 조심하고 德行을 행하여 서로 서로를 받쳐 주는 것이며, 셋째, 無所求行이다.

바라는 것이 없이 자비를 행하여 利他行을 하는 것이며, 넷째, 稱法行이다.

佛祖의 규범을 실천하므로 人格體로서의 삶을 의미한다. 이 네 가지야말로 삶의 종합이며 도에 들어가는 初人이다. 도를 닦는 사람이 達磨祖師께서 말씀하신 四行을 떠나 달리 도를 닦는다는 것은 그대로 緣木求魚다. 실현 불가능한 것을 명심해야 한다. <종략>

이 工夫는 참으로 좋은 것이로되 어려움과 불편함의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어떻게 좋은 소식을 기약하겠는가?

觀心一法は何事



迷雲破處月光明  
 凡聖從來無二路  
 莫將邪見隨多道

마음을 관하는 한 법이 무슨 일인가 미혹의 구름 없어진 곳에 달만 우뚝 밝기만 하여라. 범부와 성인은 본래로 두 길이 아니거늘 사된 견해로 이리저리 헤매지 마라.

## “禪은 무궁무진의 寶藏”

### 고불총림 백양사 방장 지선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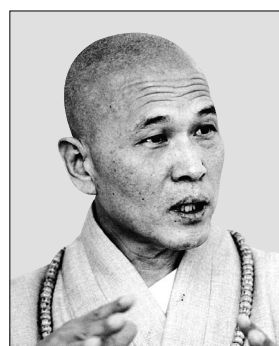
大乘一句 수행자들의 원력과 책임은 무한정으로 텅빈 소리만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생활 중에서 알게 모르게方便示顯을 해야 합니다. 지난시절의 악각악습의 관념적 태도를 변화시키는 작업으로 자기개조를 통한 바깥에서 우리 모두 生活本身의 변화신이 되면 세상을 정토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하여 모두가 대중을 위하여 일해야 즐겁고, 사랑은 헌신을 하여야 의미가 있으며, 금전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풀 때 가치가 있음을 압니다. 수행자들의 饑餓眾生이야 강조할 필요가 없겠지요. 이러한 우리 모두의 삶이 될 때 진정으로 즐겁고

살맛나는 행복으로 통하는 생활이 됩니다.

인생은 차갑고 따뜻하고 달고 쓰며 성취하고 실패하며 많은 기회를 만나거나 잃게 되거나 일터와 놀이터에서, 그리고 배우는 살아남이나 실자가두에서 고통스런 지옥문에서 뿐만 아니라 억척만사는 종이 한장 차이입니다. 소위 禪의 경지는 진실자기자주, 해탈, 안정, 희열이며, 선은 삶의 즐거움을 촉진하는 離苦得樂의 원천입니다. 선에는 지혜와 보물이 아주 많아 선이 있는 곳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종략>

禪은 무궁무진의 寶藏(보물창고)입니다. 선은 바로 불보살의 가르침인 행으로 들어갑니다. 자신의 안과 밖에서 찾으려면 어긋납니다. 자기 진실행위의 결과인 것입니다. 화두선 그자체가 주인 됨이니 우리



의 삶속에 스며들지 않는 곳이 없이 나타나는 결과는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모든 業識의 幻影이 아닌 일체처소와 모든 일 가운데에 話頭禪行的 입장이 되니 八萬萬行에 빛을 발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窮(마침)과 達(통함)에 무애자재하게 할 것입니다.

다시 오지 않을 이번 철에 확실하게 정기하십시오.

## 본성은 나지도, 소멸하지도 않는다

### 태고종 종정 혜초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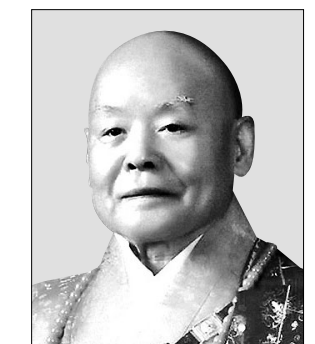
일체법이 나지도 않고(一切法不生) 없어지지도 않나니(一切法不滅) 만일 스스로 이 이치를 알 것 같으면(若能如是解) 모든 부처님이 항상 나타나라(諸佛常現前).

이것은 <화엄경>에 나오는 말씀으로, 진

정한 참나, 즉 본성은 불생불멸(不生不滅)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일대사 가운데서 큰 번수 중 하나가 삶과 죽음에 대한 고뇌일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돌이아닌 하나로 보고 생사해탈(生死解脫)의 경지를 말하며, 우주 만법이 불생불멸(不生不滅)이고, 상주불멸(常住不滅)한다. 즉 <법화경>에도 ‘불생불멸하는 이 법이 어디에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습 이대로 항상 있는 것이다(是法住法位 世間相常住)’라고

한 것처럼 이 우주는 항상 머물러 있는 법의 세계(常住法界)라고 합니다.

이 사실은 자연계의 구성이 불생불멸의 원칙으로 되어 있다고 현대원자물리학계에서도 이미 규명한 이론입니다. 즉 이 자연계는 에너지(무형의 움직임은 힘)와 질량(유형의 물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결국 형태는 변화해도 질량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계를 구성하고 있는 존재 전체가 다 있는 그대로 불생불멸



(진여의 작용)이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자연법이(自然法爾)에도 불구하고, 미혹한 중생들의 문제는 <수심결>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요즘 사람들(今之人)은

미하게 지나온 것이 오래 되어(迷來久矣) 자기의 마음이 참 부처인 줄을 모르고(不識自心是真佛), 자신의 밝은 성품이 참다운 진리인 줄을 모른다(不識自性是眞法).’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알음알이(見聞覺知)가 아닌 성품을 바로 들어 보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그러한 눈 밝은 공부인이 드물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그러나 <수심결>에는 또 다른 경계의 말씀으로 ‘대만 모르는 줄 알면 그것이 바로 견성이다.’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는 수행인들이 쉽게 빠질 수 있는 함정을 지적한 내용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알 것 같다가 나, 아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위험하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종략>

결론적으로 참된 공부인은 육신의 생사는 존재하지만, 본성은 나지도 않고 소멸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확연히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을 알면 생사를 초월해 있는 진아(眞我)인 본래 성품은 현현히 빛날 것입니다. 心持半偈萬緣空(마음에 반구절 계승만으로도 모든 인연 쉬어지네.)

一塵不染證禪心(한 티끌도 물들지 않는 다함은 선심을 드러냄이라) 身在上方諸品靜(몸을 상방에 두니 모든 사물 고요해지고) 心持半偈萬緣空(마음에 반구절 계승만으로도 모든 인연 쉬어지네.)